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국민건강을 해친다

유상덕/서울신문 과학부기자

최근 정신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의 약국판매기간 연장에 대해 관계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지난해 12월 28일 보사부가 대한병원협회 등 6개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시행규칙 입법예고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면서 비롯됐다.

보사부는 약사가 항불안제, 수면제, 진정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투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최고 3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대한 개정령을 올해 1월 14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지난 2월 19일 대한의학협회 등 4개단체가 참석한 회의에서 약국의 향정신성의약품 1회판매 허용량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보사부의 현재 입장은 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만성질환이나 귀향요양 등으로 장기조제투약이 필요한 경우 약국의 조제투약을 1일내지 3일로 제한한다는 것은 규제가 지나치다고 보고 의약분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학계, 의계, 약계 및 관계전문인을 비롯해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국민 의견을 수렴해 약국의 조제투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독현상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의료에 사용되고있는 항불안제 및 수면제는 불안, 불면, 초조감에 탁월한 효과를 준다. 그러나 이 약물은 히로뽕 보다 더 뚜렷한 금단증상을 보일 정도로 습관성이 강한 약제이다.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치료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습관성이 적으나 치료용량의 2배를 사용하면 3주만에 중독을 일으키고 치료용량을 사용해도 4~6주면 40%가 중독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한국의 향정신성의약품 생산액은 지난 '80년이래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80년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한외(限外)마약의 판매액이 30억원이었으나 '90년에는 1백43억원으로 무려 4.7배나 증가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의 대표

신경정신과의 전문의들은 「의사들이 진료과목에 관계없이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할 수 있게 돼있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시행규칙이 너무 허술하다」 고 말한다.

적 상표인 바디움의 판매액은 '80년의 4억9천만원에서 '89년에는 17억4천만원으로 3.6배 늘어났다.

미국의 약품오용경고기구(Drug Abuse Warning Network)의 보고에 의하면 바리움과 관련된 미국인 사망은 지난 '80년에 3백40명이었다.

또 바리움과 비슷한 종류의 약품과 관련된 사망은 4백81명으로서 향정신성의약품중 바리움 및 바리움과 비슷한 종류의 약품과 관련된 사망이 미국 전역에서 8백명이 넘었다.

미국에서는 1964년부터 1974년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 약품의 피해가 구체화되고 여론화되자, 1975년 이후부터는 계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바리움의 처방은 1975년 6천1백만회였는데 '80년 3천4백만회로 45%나 감소했다.

영국에서는 바리움의 처방은 지난 '88년과 '89년 1년사이에 9% 감소했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감소추세에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한국에서는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바리움과 같이 문제성을 안고 있는 약품도 급성장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판매액이 늘어난 것은 의사들의 처방·판매 증가 때문이었다.

지난 '88년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의 총판매액 60억3천4백만원중 병·의원에서 처방 판매한 액수는 50억1천만원(83.0%)이었고, 약국에서 판매한 액수는 10억2천4백만원(17.0%)이었으나 '90년의 경우는 총판매액 78억2천2백만원가운데 병·의원의 처방 판매액이 69억3천4백만원(88.7%)으로 크게 늘었으며 약국의 판매액은 8억8천7백만원(11.3%)으로 줄어들었다.

향정신성의약품 판매액의 증가를 병·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신경정신과의 전문의들은 「의사들이 진료과목에 관계없이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할 수 있게 돼있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시행규칙이 너무 허술하다」고 말한다.

신경정신과의 한 전문의는 대단히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향정신성약물 개개의 약에 관한 깊은 지식을 정신과 전문의사외의 사람들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힌다.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을 줄일려면 의사의 처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더구나 약국의 조제투약기간을 늘린다면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보사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염려한다면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